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부처님 가르침 '룽'

한국서 첫 전승법회

린포체 초청, 부산·서울서 개최

경전 결집이 이뤄지기 전, 부처님 가르침은 제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이 구전되어 내려오는 것을 입권은 '룽'을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만나볼 수 있는 법회가 열린다.

11월 12-13일 오전 10시에는 부산의 한국티벳센터(www.tibetkorea.org) 광성사주지 도량에서, 14, 15일 저녁 7시에는 서울 마네 NGO교육센터에서 '룽'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13일 광성사에서서는 보살계 수계 법회도 함께 열린다.

이번에 한국에 초청돼 '룽'을 전승하는 스님은 미국 뉴욕에서 활동 중인 린포체(83)로 달라이라마가 계승(가장 높은 공부를 대표하는 자린인 계승하람바에 오르기 위한 시험) 시험을 볼 때, 대문 상대이기도 했으며 티베트에서는 '가르침의 창고'라고 존경받고 있는 정신적 스승이다. 달라이라마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승 중의 한 분인 린포체는 열번째 환생자로 알려져 있으며 70명이 넘는 스승 밑에서 경과 룬을 두루 익혔다. 또한 네 번에 걸친 시험에 통과해 가장 높은 공부를 대표하는 자린인 계승 하람바를 성취해 지금의 린포체, 소파린포체 등 많은 제자를 두었다. 1959년 중국이 티베트를 침공하자 목숨을 건 탈출 끝에 인도

에서 망명생활을 하였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법문을 하며 활동 중이다.

이번 한국 방문은 일본에서 열리는 달라이라마의 법회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게 된 린포체를 한국티벳센터에서 어렵게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팔순을 넘긴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국 법회가 끝나면 곧바로 인도 남부 대문사에서 '룽' 전승법회를 열 예정이다. 티베트에서는 '룽'이 전승되는 법회에 한번 참석하면 경전 30만 독의 공덕이 있다고 하여 많은 이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룽'은 경전과 함께 부처님 가르침의 요의를 담고 있는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다.

'룽' 전승 법회에서 설해지게 될 내용은 <금강경> <능엄주> <신묘장구대다라니> <미타경> <반야심경> <입보리행론> <원각경> <현관장엄론> <중론> <철십공성론> 등으로 통역 없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들을 수 있다. 이날 법회에는 한국불자들을 위한 린포체의 법문에 이어 1시간 30여분간 불행된다.

한국과 티베트의 불교 교류를 위해 티베트어 교실, 티베트 경전 번역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 광성사는 앞으로 티베트 스님을 모셔 랍림, 공관론(空觀論), 현관장엄론(現觀莊嚴論) 등에 대한 공부를 한발씩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051)243-2468 **천미희 기자**

쌀 200포대 20개 복지관에 전해

부산불교연합회, 팔관회 및 수륙 천도제 봉행

부산시불교연합회(회장 대상)는 10월 29-30일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제7회 팔관회 및 수륙공 천도대제를 봉행했다.

한반도 평화와 부산발전을 기원하며 봉행된 팔관회는 29일 식전행사에 이어 2부로 팔관제례를 받는 팔관회 법회가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서 대상 스님은 대회사에서 "팔관회는 팔재계를 가리는 불교적 의미 외에도 호국선신들에게 제를 올리고 순국선열을 가리는 국가적 차원의 문화 축제"라고 말했다. 대상 스님은 부산불자들이 모은 10kg들이 쌀 200포대를 허남식 시장에게 전달했다(사진).

허남식 부산시장은 고분문을 통해 "팔관회의 장엄함과 불보살의 원력으로 일심 정진하여 부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부처님의 가피가 온 세상에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불교연합회(회장 대상)는 10월 29-30일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제7회 팔관회 및 수륙공 천도대제를 봉행했다.

이러 열린 팔재계 수계법회에서 고산 스님은 "8가지를 막고 금한다는 팔재계를 벗어 나가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믿고 스스로 받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니 "고난과 행복을 스스로의 정진으로 개척해 나가는 불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부산 해인문화회관 개관



부산 해인정사(주지 수진)는 10월 28일 해인정사 대웅전 앞에 마련된 무대에서 해인문화회관 개관을 기념하는 불교전문댄스 '해조음' 정기연주회를 열었다(사진).

문화 포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00평 규모의 해인문화회관을 개원한 해인정사의 주지 스님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장엄하는 일은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 사람의 마음에 피워내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 문화회관이 음악을 듣고 차를 마시며 스스로를 가꾸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연주회에서 해조음의 첫 시디 '살구꽃 피는 여기 해인에'에 수록된 곡들과 '엄마야, 누나야' 등 동요도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051)202-4933 **천미희 기자**

지중 스님 불우이웃 위해 공연

중요무형문화재 57호 경기민요 이수자 경남 양명사 주지 지중스님은 10월 26일 KBS 창원 홀에서 불우이웃돕기 제2회 강병현경기민요 발표공연을 개최했다.

강병현전통국악예술연구원 원장인 지중스님은 "낮고 천한 소리로 여겨지는 경기소리지만, 부처님의 자비와 진리가 높고 낮은

의 분별없이 고루 퍼지는 것처럼 경기소리로 민심을 만지고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중 스님과 예술연구원원생들의 '좌장 경기 12장가 유산가'로 시작된 공연은 입춤, 장기타령, 회심곡 등으로 이어졌으며 2부에 걸쳐 10여 가지의 타령과 춤사위를 선보였다. 이날 수익금은 창원 KBS와 창원군 장학재단으로 전달 돼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은아 기자**

부산 지장암, 철마기원제

부산 철마면 지장암(주지 능원)은 10월 28일 지장암 경내에서 무량수전 낙성법회 및 철마기원제를 봉행했다.

발원문 낭독, 경과보고 순으로 봉행된 이날 법회에서 지장암 주지 능원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지장암이 있기까지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불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불사가 회향되고 부처님의 뜻이 이 세상에 가득 찰 때까지 정진하겠습니다"고 말했다.

통도사 개산대제 및 문화행사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산웅)는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통도사 창건 1361주년을 기념하는 개산대제 및 문화행사를 통도사 경내에서 개최했다.

30일 열린 개산대제 법요식에서 통도사 전계회상 해남 스님은 법어를 통해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율사는 나라가 태평하고 민중이 평안한 세상을 기원했다"며 "우리도 스님의 뜻을 이어 그와 같은 서원을 세우고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 정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지 산웅 스님은 봉행사에서 "승가의 본분을 바로 세우고 부처님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로의 손을 잡고 화합하자"고 말했다. **이은아 기자**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이

임수영

부산 선재어린이집 원장



"스님, 제가 학생회 법회를 맡아보겠습니다."

10년 전 어느 날 부산 해원정사 주지 원회 스님을 찾아가던 임수영(50·도광성) 선재어린이집 원장은 불쑥 이렇게 말을 꺼냈다. 10명 남짓의 학생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법회를 보고 있었지만 학생들을 제대로 보살필 지도교사가 없다는 걸 알고 난 후, 조금은 당찬 의욕을 갖고 깨낸 말이였다.

이미 10년 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집에 나와 공부로 이어오던 임원장을 보아왔기에, 원회 스님이 반가움을 숨기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게 임 원장은 학생회 법회의 지도교사가 돼 지금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다.

지도교사들과 함께 월 1회 모임을 가지며 청소년 포교 분야에서 활동하는 몇 안 되는 지도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둘이켜 보면 언제나 학생회 법회가 삶의 일순위에 있었다. 가족 행사보다 앞선 것이 학생회 법회였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늘 뒷전이였다.

학생회를 맡기 전, 어린이법회 도우미 교사로 활동하면서도 어린이법회 연수회에 혼자 찾아가 당장 소용에 닿지도 않는 자료들을 차곡차곡 모아놓기도 했을 정도로 하나라도 더 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2005년 3월부터는 해원정사가 운영하는 선재어린이집의 원장도 겸하면서 업무가 바빠졌다. 미술학원, 어린이집 원장을 지낸 전문성을 살려, 만 2세부

엄하고 자상한 '엄마' ... "법회가 삶의 1순위"

학생 더 잘 지도하기 위해 포교사 자격증 취득

30 대 초, 어머니의 권유로 해원정사에 나오기 시작한 임원장은 숨이 물을 뺏아들이듯 불법의 세계에 흠뻑 젖어 들었다. "불법을 배우는 일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다"고 그 당시를 회고하는 임원장은 불교서적, 법회, 강의, 교양대학을 가리지 않고 찾아다녔다.

미술학원으로 낮에 시간을 낼 수 없게 되자, 일과 후 한 두 시간이라도 시민선방에 앉았다가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평생 해야 할 공부를 만난 즐거움에 젖어 있을 무렵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눈이 갔고 스님을 찾아가 학생회를 맡아 보겠다는 말을 꺼내게 된 것이다.

"출석을 잘하면 선물을 줬어요. 고향을 질러가며, 때론 눈물까지 흘려가며 1080배를 시키고, 아이들에게 열정을 쏟아 붓자 법회 인원이 100명으로 늘어나 있을 자리가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렇게 늘어난 학생들을 좀 더 잘 지도하기 위해 더 깊은 공부를 하게 됐고 포교사 자격증도 땀. 포교사가 되자 곧바로 청소년 포교에 대한 정보교류를 위해 청소년포교팀인 선재팀을 만들어 4년 정도 팀장을 맡았다. 이후 지금까지 청소년 포교에 뜻을 같이 하는

터 만 5세까지의 아이들을 부처님의 품안에서 보살피는 일까지 맡게 된 것이다.

"어린이집까지 맡고 보니 일요일 하루는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학생들을 보면 피로가 싹 가시고 좋기만 하니 학생회를 맡아 보겠다고 10년 전의 저처럼 나서는 사람이 생기면까지는 계속 하지 않을 까 싶네요."

어떠한 순간에도 정진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하루 한 두 시간은 반드시 고요한 시간을 갖는다는 임원장. 임원장의 꿈은 아이들의 마음에 불법의 꽃을 피우는 것이지만, 그 꿈은 임원장의 마음 안에서 이미 활짝 피어 향기가 두루 퍼지고 있다.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 부산지사 : (051)632-0064
-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 경남남부지사 : (011)571-5316
- 울산지사 : (052)272-0909

음성 공양 듣고 복지기금 전달도

울산 찬불가대회 10주년 기념

울산불교신도회(회장 황경환)는 10월 26일 KBS 울산홀에서 울산 찬불가대회 10주년을 기념하며 합창제와 기념 축제를 거행했다.

통도사 주지 산웅 스님 환영한 울산불교신도회장을 비롯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합창제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울산시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와 합창제 연희보고, 설운도 축하공연에 이어 각 사찰이 조를 나눈 찬불가 공연을 선보였다.

울산불교신도회는 이날 합창제에서 스타리랑가 복지기금 2차 분으로 2천 만원을 추가로 전달했다. 지난 6월 24일 통도사 백

련암에서 1차 2천만원원을 전달한 울산불교신도회는 내년 2월경 3차로 1천만원원을 추가로 전달 총 5천만원의 기금을 스타리랑가 복지기금 건립에 지원하게 됐다. 내년 2월경, 스타리랑가 복지기금 완공에 맞춰 울산불교신도회 임원이 스타리랑가를 방문하게 될 예정이다.

이날 합창제에는 통도사, 백양사, 용안사, 석남사,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정토사, 남산사, 정광사, 망해사가 참여해 '일천강에 비치는 달', '홀로피는 연꽃', '아빠의 청춘' 등 찬불가와 대중가요, 가곡 등을 선보였다.

한편 울산불교신도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울산불교방송 개국은 빠르면 내년 안에는 개국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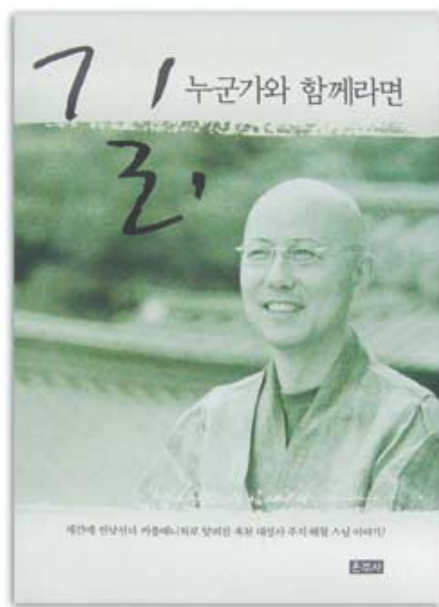
선남선녀의 따뜻한 인연을 이어주는

혜철스님의 가을같은 맑은 이야기!

'대성사 따뜻한 만남'이라는 새로운 법회를 통해 처녀총각 인연 맺어주기를 실천하는 혜철스님이 그 동안의 법문과 기고문, 그리고 시와 단상 등을 모아 엮었다. 세간의 일상을 담담히 담아내는 따뜻한 시선, 환경오염에 대한 애절한 안타까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마음가짐 등 대립과 투쟁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대한 절실한 사랑이 묻어난다.

인생은 나와 인연과 연緣을 맺은 수많은 사람, 수많은 환경과의 공존의 길이다. 독자 한사람 한사람이 이 책의 주인공이며, 함께해서 행복한 그 '누군가'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

대성사 주지 혜철 합장



71, 누군가와 함께라면

국판/278쪽/12,000원
문주사

*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구입안내 : 현대불교 대전총부지사 043)732-5560

수목장, 납골탑, 천불전 무료 분양

靈林寺에서는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천연경관이 수려한 경내 수목장 500주, 부도탑(납골탑) 500기, 천불전 1천불을 조성 불자들을 위해 **시설 일체를 무료개방**하고 유족들에게 연중 모든 숙식을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 시설비 일체 : 무료
- ◆ 유족 방문시 숙식 : 무료
- ◆ 각종제(천도제, 기일, 명절제사) : 무료
- ◆ 봉안·관리비 : 월 3천원



조감도

대한불교수목장보급회 <http://www.sumogjang.co.kr>
• 위치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잠실운동장 1시간 20분 96km)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사찰에 수목장, 부도탑, 천불전 조성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해 드립니다.

02)562-0821